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JW신약(067290)

## 제약/생명과학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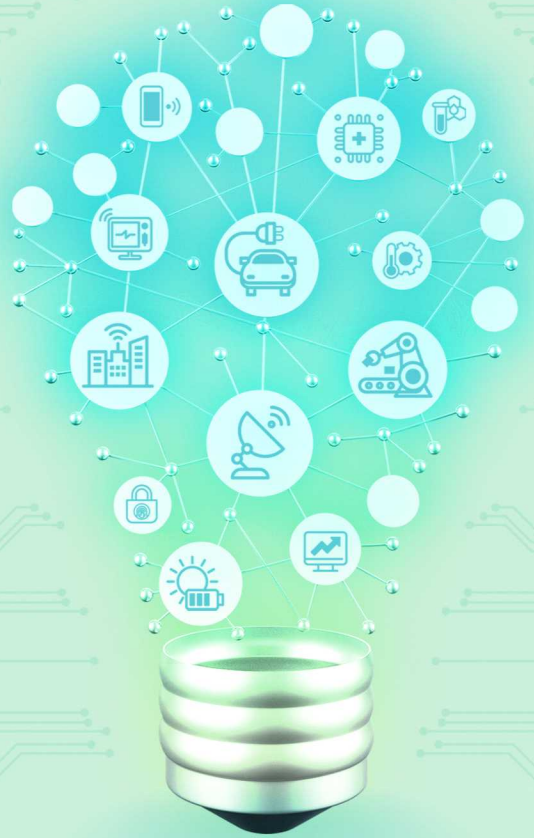
기업현황

시장동향

기술분석

재무분석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한국기업데이터(주)

작성자

신지혜 선임전문위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게재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215-2398)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R협회

# JW신약(067290)

## 제약과 바이오기술의 결합을 통한 헬스케어 리더

### 기업정보(2021/1/6 기준)

대표자	백승호
설립일자	1975년 1월 1일
상장일자	2003년 2월 11일
기업규모	중견기업
업종분류	완제 의약품 제조업
주요제품	항진균제, 비뇨기과용제 외

### 시세정보(2021/1/11 기준)

현재가(원)	5,62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2,432
발행주식수(주)	41,667,166
52주 최고가(원)	7,248
52주 최저가(원)	2,560
외국인지분율	1.82%
주요주주	JW홀딩스(주) 25.26%, 이종호 5.58% 외

### ■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의약품 제조 전문 기업

JW신약(주)는 히트라졸정, 원플루캡슐 등의 항진균제 및 피디정 등 피부질환 치료제, 항생제, 정장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제품구성을 하고 있으며, 피부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등 특화된 시장에서 이익률이 높은 비급여성 제품 라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특히, Clinic 중심의 영업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형품목육성을 위해 발모제 등 제품을 차별화하여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항시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영업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시장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 SK바이오사이언스의 대상포진백신 공동판매 영역 확장

2020년 6월 SK바이오사이언스와 대웅제약의 스카이조스터(SK바이오사이언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대상포진백신) 공동판매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스카이조스터의 판매 체계를 SK바이오사이언스의 모회사인 SK케미칼과 동사가 공동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는 기존 대웅제약·JW신약·SK케미칼 등 3사로 나누어졌던 판매 체계가 JW신약(주)와 SK케미칼 양분 체계로 전환되는 것으로, 대웅제약이 담당했던 병원과 종합병원과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영업을 나눠 맡게 됨으로써 스카이조스터 판매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스카이조스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 과천 통합 R&D센터 입주를 통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

JW그룹이 미래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복합시설의 개발사업을 통해 신사옥을 건립하고 있다. 2023년 초 준공 예정이며, 총 1,2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통합사옥에는 JW그룹 본사 및 주요 핵심 계열사와 동사 연구소뿐만 아니라 계열사마다 분리·운영되던 연구소를 한 곳으로 통합해 상호 간의 시너지를 끌어 올릴 예정이다. 또한, 사업 회사별 특화된 플랫폼 기술이 한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연구 시너지가 높아져 동사의 신약 개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구분 년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17	768	-7.85	-32	-4.12	-61	-7.92	-17.04	-4.63	236.73	-146	868	-	9.87
2018	918	19.43	6	0.63	-75	-8.20	-21.36	-6.47	228.16	-173	768	-	8.74
2019	1,025	11.72	11	1.12	14	1.41	2.90	1.17	107.56	33	1,516	140.47	3.20

## 기업경쟁력

### 차별화된 생산시설 확보

- 내용고형제 생산라인 : 정제/캡슐 자동선별기 등 보유
- 외용액제 생산라인 : 다양한 형태 용기 충전시설 보유
- 연고제 생산라인 : 자동화 로봇 및 최신 설비 도입

### 다양한 연구 네트워크 보유

- 공동연구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 실현
  - 산학연 연구 네트워크 구축
  - JW신약(주) 제제연구팀, JW크레아젠(주) 연구소 협업

## 핵심기술 및 적용제품

### 핵심기술

- 수지상세포 백신 기술
  - 면역 유도 및 조절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수지상세포를 이용하여 면역반응 유도·활성화를 통한 암, 자가면역질환 치료 기술 → 부작용이 매우 낮음
- 약물 전달 기술(CTP)
  - 단백질 및 생물학적 제제나 의약품들을 세포내의 세포질까지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약물전달기술 → 적은 양으로도 유효한 효과 구현
- 단백질 제조 기술
  - 항원, 사이토카인, 성장인자 등 고효성, 고순도의 단백질 제품 생산 기술

### 적용제품

#### ■ 전문의약품



#### ■ 일반의약품



#### ■ 의약품



#### ■ 기타(건강식품 등)



## 매출실적

### ■ 품목별 매출 실적 (단위 : 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제품	541	593	450
상품	214	307	324
기타(용역 등)	13	18	20
합계	768	918	794

## 시장경쟁력

### 목표시장 내 경쟁력

- 소비자 요구에 맞는 제제 개선 연구를 통한 차별화된 제품 파이프라인 구축
- JW중외제약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공동마케팅을 통해 체계적인 영업 네트워크 구축

### 세계 의약품 시장 규모

년도	시장 규모	성장률
2018	12,048억 달러	연평균 : 5.5% 성장 전망 (출처 : IMS Health)
2023	15,000억 달러	

## 최근 변동사항

### 대상포진백신 공동판매 영역 확장

- 제품 :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조스터
- 기존 : 대웅제약·JW신약·SK케미칼 3사 판매체계
- 변경 : SK케미칼·JW신약 2사 판매체계
- 효과 : 대웅제약이 담당했던 의료기관의 영업 나눠 맡게 됨으로써 판매 영역 확장 → 매출 증가 예상

###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마케팅 강화

- 스마트 e-카탈로그 시스템 개발 마케팅에 활용 중
- JAMI Web Symposium 개최
- 효과 : 코로나19에서도 영업활동 지속 가능 향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 마련

### 동사 연구소 과천 R&D센터 입주 예정

- 과천지식정보타운 복합시설, 신사옥 건립 예정
- 동사 포함 관계사 연구소를 위한 통합 R&D센터 입주
- 효과 : 4차 산업혁명 보건의료산업 패러다임 대응 계열사별 특화 플랫폼 기술 통합하여 연구 시너지 향상 → 동사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될 것으로 전망

## I. 기업현황

### 우수한 의약품을 생산/공급하는 클리닉 전문메이커

동사는 히트라졸정, 원플루캡슐 등의 항진균제 및 피디정 등 피부질환치료제, 항생제, 정장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특화된 시장의 제품 라인을 가지고 있으며, 항시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영업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시장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 ■ 회사 연혁 및 주요 사업 분야

JW신약(주)(이하 ‘동사’)는 1975년 1월 철금속 제품 제조 및 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03년 2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고, 2008년 6월 의약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으며, 2008년 8월 손톱깎이류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주)쓰리썸브을 설립하였다. 2009년 5월 (주)중외신약을 합병하였고, 2016년 3월 현 상호로 변경하여 사업 영인 의약품 제조업체로 2020년 9월 말 기준 상시종업원 258명이 근무하고 있다.

연결대상 종속회사는 면역세포치료제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JW크레아젠(주)가 있다. JW크레아젠(주)는 2007년 신 세포암 치료제(CreaVax-RCC Inj.)를 최초로 제품화하였으며, 현재 간암 치료제를 비롯한 항암 및 항염증 분야의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밖에도 단백질 제조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항원 및 면역세포 혹은 줄기세포 사이토카인을 개발하고 있다. 현재 실질적인 영업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종속회사의 사업부문과 관련된 매출 및 생산 활동은 모두 동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1] 동사 전경



\*출처 : 동사 홈페이지

동사의 계열회사는 2020년 9월 말 기준 동사를 포함하여 총 17개사이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JW홀딩스(주), JW중외제약(주), JW생명과학(주), 비상장법인인 JW메디칼(주), JW생활건강(주), (주)제이더블유이노스퀘어피에프브이, JW케미타운(주), (주)C&C신약연구소, JW크레아젠(주), JW바이오사이언스(주), 해외법인인 JW Theriac, JW Healthcare Philippines, JW Healthcare Vietnam, Euvipharm JSC, (주)생명누리 등이 있다.

[그림 2] JW그룹 주요 계열사 지배구조



\*출처 : 동사 분기보고서(2020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 대표이사 정보 및 경영진

대표이사 백승호(1961년생, 남)는 한국과학기술원 경영학 석사를 취득하였고, 한올바이오파마(부사장, 2015년~2016년), JW신약(영업 마케팅 총괄 부사장, 2016년~2017년)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7년 3월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경영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동사의 대표이사는 주력 사업을 위한 실현 가능한 중장기 경영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 관리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활발한 대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 안정적인 지배주주 경영체제

최대주주인 JW홀딩스(주)(대표이사 : 이경하, 한성권)는 관계회사로 대표이사인 이경하가 JW그룹 전체를 이끄는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이종호 역시 이경하 회장의 부로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을 합하면 약 30.84%인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사는 JW그룹 이경하 회장이 전체 조직을 운영하면서도 책임과 권한을 갖는 형태의 안정적인 지배주주 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다.

[표 1] 주요 주주 구성

주요 주주	대표이사와의 관계	주식(주)	지분율(%)
JW홀딩스(주)	계열회사	10,523,312	25.26
이종호	임원	2,323,981	5.58
합계		12,847,293	30.84

\*출처 : 동사 분기보고서(2020년 9월)

### ■ 특화시장 전문기업 JW신약(주)

동사는 히트라졸정, 원플루캡슐 등의 항진균제 및 피디정 등 피부질환 치료제, 항생제, 정장제 등의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제품을 구성하고 있으며, 피부과, 비뇨기과, 소아청소년과 등 특화된 시장에서 이익률이 높은 비급여성 제품 라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특히, Clinic 중심의 영업활동을 통해 해당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형품목육성을 위해 발모제 등 제품을 차별화하여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항시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영업성과를 극대화하고자 시장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II. 시장 동향

### 제약산업, 미래 국가 경제를 주도할 성장 동력

제약시장은 신약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의 증가 등으로 세계적으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공조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신약들의 연이은 특허 만료와 각국의 약품비 통제강화 등에 따른 제네릭의약품 비중 강화 등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 ■ 연구개발 비중이 높고 업체 간 경쟁이 치열

제약산업은 인간의 생명과 보건에 관련한 고부가가치와 지식기반의 산업으로서 원료 및 완제 의약품의 생산과 판매에서부터 신약개발을 위한 연구 등 모든 과정을 포괄하는 첨단 부가가치 산업으로 기술집약도가 높고 신제품 개발 여부에 따라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제약산업은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의 결과가 기업의 성과와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신제품 및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비용 및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는 필수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런 관계로 타 업종보다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전 세계 제약시장은 빠른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추세에 따라 헬스케어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제약시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일괄 약가 인하정책, 약가 재평가 등의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어려움이 예상되나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로 의약품 수요는 꾸준히 유지될 전망이다.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의약품을 연구·제조하는 산업인 만큼 경기변동에 따른 민감도가 비교적 낮은 비탄력적인 성향을 보인다.

의약품의 종류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이 요구되는 전문의약품과 진료 없이 일반인이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있는데 일반의약품의 경우에는 경기변동과 날씨 및 기후에 의한 계절적인 요인에 다소 영향을 받는 편이지만, 전문의약품은 경기변동에 그다지 민감하지 않고 안정적인 성장패턴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림 3]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비교



처방전이 필요하면  
전문의약품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으면  
일반의약품

\*출처 : 대한민국 정부 블로그 정책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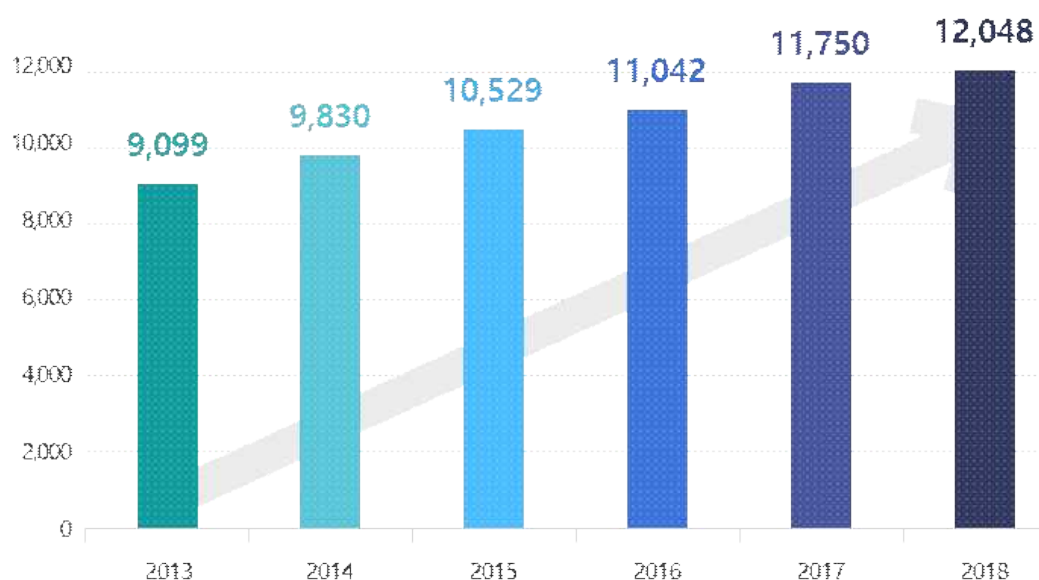
제약산업은 크게 국내 상위 제약업체와 다국적 제약업체, 국내 중소 제약 업체 등 약 600개 제약사의 경쟁구도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능력 및 투자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는 특허가 만료되는 제품에 대한 제네릭 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 타 산업보다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편이다. 이에 따라 다양하고 차별화된 제품력과 영업력, 브랜드 인지도, cGMP 기준의 생산시설 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경쟁 요인들을 갖추고 있는 다국적 제약기업과 국내 상위 제약업체의 시장 지배력은 강화되고 소형업체들의 경우 제품력 열세로 제약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제약업계는 건강관리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제약업체 디지털화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2020년 3분기 보건산업(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훼손, 글로벌 경기 둔화, 유가급락,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외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력산업 및 신 수출성장동력 산업 대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수출동향 분석에 의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여파에도 불구하고 보건, 제약산업의 수출 증가량은 진단키트 등에 힘입어 탄탄한 성장세를 보이며, 글로벌 양적완화로 인한 산업 전반의 회복세로 성장 폭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 세계 제약,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및 제네릭의약품 비중 강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의하면 세계 의약품 시장은 1조 2천억 달러(약 1,395조 원, 2018년 기준)로 추산되며, 인구 고령화 등 의약품 수요 증가로 2005년 이후 연평균 6%대에 성장세를 유지, 앞으로도 연평균 4~7%의 성장 속도를 보이며 2023년 1조 5천억 달러(약 1,73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신약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의 증가 등으로 점차 세계적으로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이 공조하는 오픈이노베이션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신약들의 연이은 특허 만료와 각국의 약품비 통제강화 등에 따른 제네릭의약품(특허만료의약품) 비중 강화 등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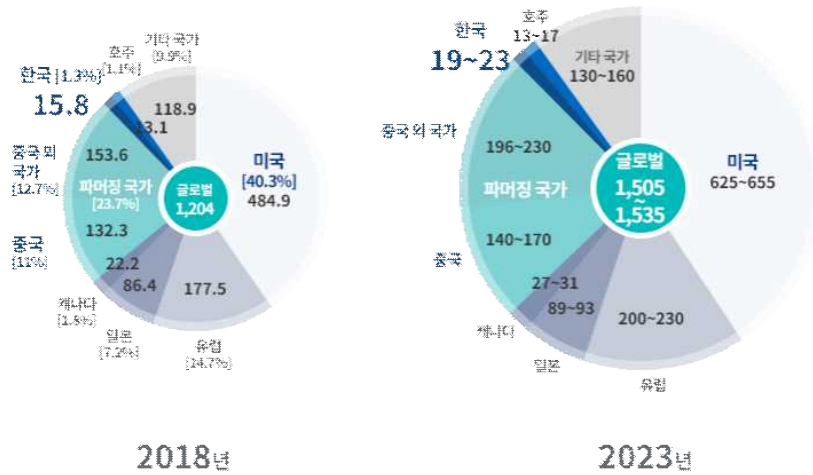
[그림 4] 세계 의약품 시장규모 (단위 : 억 달러)



\*출처 : IMS Health

[그림 5] 지역별·국가별 의약품 시장현황 및 전망

(단위 : 십억 달러)



\* 파머징(emerging)은 제약을 뜻하는 'Pharma'와 신흥을 뜻하는 'Emerging'을 합친 신조어로 제약산업 신흥시장을 뜻함.

\*출처 : IMS Health

■ 국내 제약, 시장규모 및 연구개발로 인한 성장 지속

국내 제약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중요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미래 국가 경제를 주도할 성장 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산업통계에 따르면 매년 6~8% 성장을 하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글로벌 신약개발에 성공하면 대규모 국부 창출이 가능하지만 5,000여 개의 신약 후보 물질 가운데 5개만이 임상시험에 진입하고, 이 중에서도 한 개의 신약만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제약산업은 고위험과 고비용, 고수익 구조이며 오랜 개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AI 신약개발 지원센터 등을 통한 개발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8년 23조 1,175억 원으로, 약 1,395조 원에 달하는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의약품 생산액은 21.1조 원, 수출액 5.1조 원, 수입액은 7.1조 원이며, 바이오의약품 생산액은 2조 6,000억 원으로,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9.9%의 비중을 갖고 있다. 23조 원에 달하는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국내 총생산의 1.3%, 제조업 국내 총생산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국내 의약품 시장규모

(단위 : 억 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생산	157,140	163,761	164,194	169,696	188,061	203,580	211,054
수출	23,412	23,306	25,442	33,348	36,209	46,025	51,431
수입	58,449	52,789	54,952	56,016	65,404	63,077	71,552
무역수지	-35,037	-29,483	-29,610	-22,668	-29,195	-17,052	-20,121
시장규모	192,177	193,244	193,705	192,365	217,256	220,632	231,175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산업통계



### Ⅲ. 기술분석

#### 혁신 기술로 불가능의 오늘을 개척하는 헬스케어 리더

동사는 중·장기적으로 현장의 문제, 현장의 기회 요소들을 발굴을 통한 의사의 처방 용이성과 환자의 복용 편리성이 개선된 복합제 연구개발과 외용제 연구개발 등 시장에서 경쟁제품과 차별화된 제제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 ■ 의약품의 정의 및 종류

의약품이란 병을 치료하거나 증상을 완화하는, 혹은 일시적으로 통증을 줄여 주는 데 쓰이는 특정한 물질로, 일반적으로 약이라고 불린다. 대한민국의 의약품은 의약외품과 의료기기가 아닌 물질로 정의된다. 의약품의 사용을 통한 약물치료는 의학에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주된 방법으로 사용되며, 약사에 의하여 중재된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의약품은 제약회사에서 만들며 새로이 개발된 신약은 특허로서 보호받고 있다.

의약품은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주로 화학합성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소분자 약물과 생물학적 제제로서 재조합 단백질, 백신, 혈액제제를 포함하는 생물 유래 물질의 약물로 나뉜다. 한편, 용도에 따라서는 해열제, 소화제와 같이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나눌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처방 필요 유무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누고 있다. 일반의약품은 처방전 없이도 소비자가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어 부작용이 비교적 적은 의약품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으며, 부작용의 위험성이 일반의약품보다 크기 때문에 용법과 용량에 대한 의사의 진단과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다.

동사는 항진균제, 피부질환 치료제 등을 포함한 전문 및 일반의약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으로 수지상세포 백신 기술, CTP 기술 등을 기반기술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그림 6] 의약품 분류



\*출처 : LG경제연구원, 글로벌 제약산업에 부는 변화의 바람, 2013년

■ 수지상세포 백신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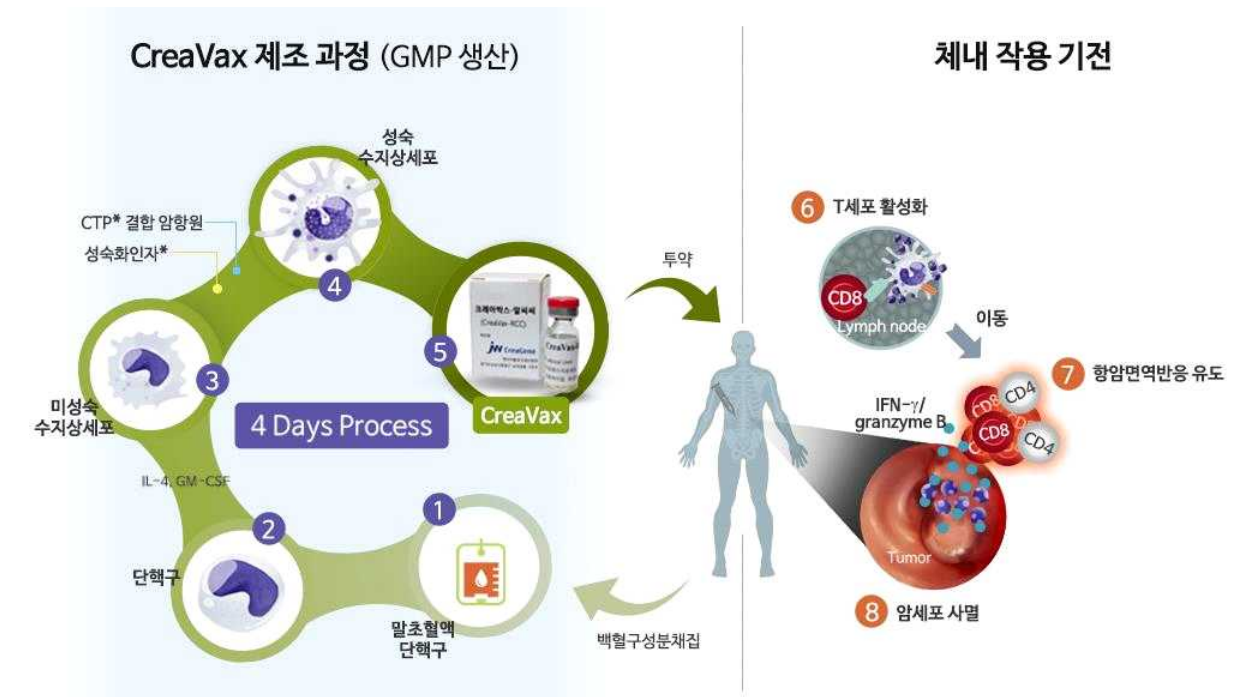
수지상세포는 나뭇가지 모양의 덴드라이트(dendrite)가 잘 발달하여 있는 항원제시세포로 1973년 칸(Zanvil A. Cohn)과 슈타인만(Ralph M. Steinman)에 의해 면역 보조 기능이 밝혀졌다. 수지상세포는 피부, 위나 장 점막조직, 혈액 등 모든 조직에서 소량 존재하며, 내재면역반응과 적응면역반응을 모두 유도할 수 있는 전문적인 항원제시세포로 면역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수지상세포는 외래미생물, 병원체 및 항원 단백질 등을 찾아 흡입한 후 항원 정보를 세포 표면에 제시하고 T세포와 B세포가 모여 있는 림프절로 이동하여 항원 정보를 전달한다. 수지상세포로부터 항원 정보를 전달받은 T세포와 B세포는 항원 특이적 면역반응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하여 체내 면역반응을 조절한다. 따라서 수지상세포가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알러지성 과민반응 등의 자가면역질환 뿐 아니라 암, 감염성 질환 등이 발생하게 된다.

동사의 종속회사인 JW크레아젠(주)에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신장암치료제(CreaVax-RCC)를 개발하여 2007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청(KFDA)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으며, 2013년 12월에 수출용 의약품 전환을 완료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여 간세포암, 뇌종양 등 악성종양과 자가면역질환을 대상으로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JW크레아젠(주)의 수지상세포 항암 백신 기술은 환자 본인의 혈액에서 분리한 단구세포를 수지상세포로 분화시키고 암 항원에 대한 정보를 인식시키는 배양과정을 통해 항원 특이적 수지상세포를 제조하는 기술로써, 이 수지상세포 항암 백신을 통해 환자의 약해진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고 항원 특이적인 면역반응을 유도하여 암세포를 공격, 암을 치료/예방할 수 있다.

[그림 7] 수지상세포 항암백신 제조 및 치료 기전



\*출처 : JW크레아젠(주) 홈페이지

[표 3] 보유하고 있는 백신 종류

	간암 항암 백신	뇌종양 항암백신	신세포암 항암백신	전립선암 항암백신
개발 필요성	- 국내 전체 암 중 발생률 6위, 사망률 2위 - 1차 치료로 수술 또는 비수술적 치료법을 통한 원발암 제거가 일반적이거나, 간암 수술 환자의 70%가 5년 내 재발되며, 재발된 간암은 치료예후가 좋지 않아 재발 억제를 위한 치료제 개발이 필요	- 원발성 뇌종양의 일종인 악성 신경교종은 생존율이 8.9% - 주위 뇌조직으로 침투하며 자라기 때문에 현존하는 치료제로는 암 조직의 침투속도를 늦추는 정도의 치료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국내 전체 암 중 발생률 10위 - 약 30%의 환자가 전이상태로 발견되며, 전이가 없는 환자라도 20~50%는 결국 원격전이로 진단되는 예후가 불량한 암종 - 전이성 신세포암의 5년 생존율 약 2~5%에 불과, 치료제 개발이 필요	- 국내 전체 암 중 발생률 7위로 증가추세 - 전이성 전립선암은 호르몬 치료에 실패할 경우 현존하는 치료법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평균 생존이 40~60주에 불과
개발 현황	다기관 임상 3상 진행중	다기관 임상 1/2상 진행중	임상 1/2상 완료(조건부 판매허가) 후 라이선스 아웃 진행중	임상 1/2a상 완료
논문 게재	- CreaVax-HCC 임상 1/2a상, 2015, British Journal of Cancer - CreaVax-HCC 임상 2상, 2017, Oncoimmunology		- CreaVax-Rcc 임상 1/2상, 2007, clinical Immunology	

\*출처 : JW크레아젠(주) 홈페이지

수지상세포는 성숙화 단계에 따라 상이한 성질을 나타내는데, 성숙 수지상세포(mature DC)는 면역유도 기능을 보이므로 항암백신에 사용되지만,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수지상세포는 면역조절 기능을 가지므로 제 1형 당뇨병(type I diabetes), 아토피(atopy) 및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질환 및 조직이식(transplantation)에 따른 거부반응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는 자가항원에 대한 과도한 면역반응과 관련된 면역세포의 활성화 및 증식이 항원 특이적인 면역조절 수지상세포에 의해 억제됨으로써 치료된다는 원리이다.

대표적인 자가면역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은 체내 이상 면역 반응으로 인하여 신체 관절부위에 임파구가 몰려들어 염증을 일으키고, 연골조직과 뼈가 손상되는 질환이다. 환자 수는 세계 전체 인구의 1~2%로 추산되며, 국내 인구의 1.4%(70만 명) 가량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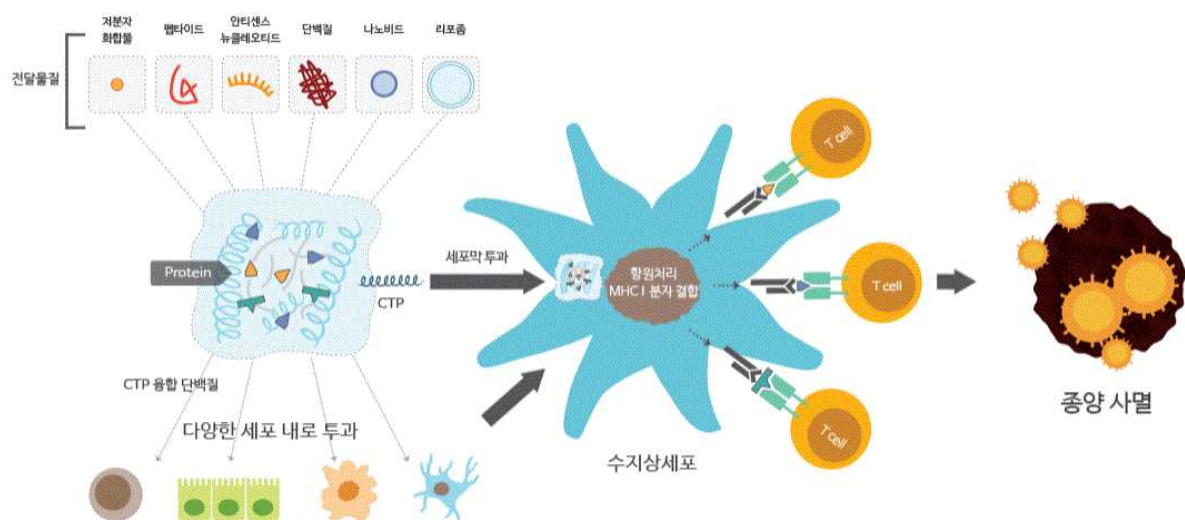
JW크레아젠(주)는 면역조절 수지상세포 제조 기술을 토대로 류마티스 관절염 특이항원이 감작된 수지상세포를 제조하여 비임상 시험을 통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수지상세포 기반-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의 유효성 및 안전성 확인을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 ■ CTP(Cytoplasmic Transduction Peptide) 기술

CTP는 Cytoplasmic Transduction Peptide 약자로, 고분자 물질을 세포의 세포질까지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약물전달기술이며, 약물이 세포질에서 작용하여 생물학적 활성을 나타내야 하는

경우의 약물전달시스템 (DDS : drug delivery system)으로서 매우 유용하다. 향상된 세포막 투과효능으로 CTP에 결합된 약물은 저농도에서 유효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특히 사용할 약물이 유전자 이상을 초래하면 핵 이동이 차단된 CTP 기술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수지상세포 항원전달 기술은 CTP가 융합된 재조합 단백질을 질환 특이적 종양항원으로 사용하여 수지상세포 암백신이 체내에서 강력한 종양 억제 효과를 유도할 수 있게 된다.

[그림 8] CTP 기술 개요



\*출처 : 동사 홈페이지

### ■ 기술개발 역량

동사의 연구개발 조직은 JW신약(주) 제제연구팀과 JW크레아젠(주) 연구소로 조직되어 있다. JW신약(주) 제제연구소에서는 신제품 연구와 더불어 기존 제품의 공정개선, 품질개선 및 소비자들의 복용 용이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비뇨기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내과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을 중심으로 신제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CMO 사업 수행을 위한 제제연구와 기존 제품의 공정개선, 품질개선 및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는 제제개선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JW크레아젠(주) 연구소는 암,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질환 치료제 및 CTP 관련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동사는 기 시행되어 운영되고 있는 ‘허가특허연계제도’ 라는 허가요건 변화에 따라 제제연구 계획단계에서부터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다수의 기술개발을 진행하여 결과에 대하여는 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하여 JW크레아젠(주)의 실적을 포함 2020년 12월 말 기준 특허권(등록 20건), 상표권(등록 235건)을 보유하고 있다.

[표 4] 연구개발투자비용

(단위 : 백만 원, %)

과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분기
연구개발비용 계	3,228	2,202	3,511	1,662
연구개발비 / 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 ÷ 당기매출액 × 100]	4.20	2.40	5.16	2.40

\*출처 : 동사 분기보고서(2020년 9월), 사업보고서(2019년)

[표 5] 최근 년간 주요 연구개발 실적

회사명	연구과제	연구내용	향후계획
JW신약(주)	알러반정	항히스타민제	발매완료
	라니린정	해열진통제	
	펜디에프정	식욕억제제	
	아이듀점안액	인공누액	
	리스로마이신건조시럽	항생제	
	모담정	소염진통제	
	잘코넥스나잘스프레이	부신피질호르몬제	
	디푸코로선	부신피질호르몬제	
	이부프로펜건조시럽	소염진통제	
	뮤레스건조시럽	거담제	
	큐어패스정	배뇨장애 치료제	
	네오다트연질캡슐	전립선비대증, 남성형 탈모치료제	
	넥시알디정	위식도 연류질환, 항생제	
	제이콕스캡슐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에시플엔캡슐	정장제	
	제이릴네일라카	조갑진균증	
	데소닉구강붕해필름	야뇨증	
	라베로즈정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모스트리정	소화기능개선제	
	미카르텔미정	고혈압제	
	로우포지정	고혈압제	
	글리커버	치매개선제	
	로게인폼	탈모치료제	
	스카이조스터	대상포진백신	
	하이베포정	알레르기성비염	
	글리벤트연질캡슐	뇌혈관질환, 뇌대사개선제	
웰마코연질캡슐	동맥경화용제		
니코스트정	금연보조제		
네오다트정	BPH		
JW크레아젠(주)	CreaVax-RCC	수지상세포의 항암 면역 증강을 이용한 신장암치료제	첨바법 시행에 따른 품목 재허가 대응
	CreaVax-BC	수지상세포의 항암 면역 증강을 이용한 뇌암치료제	선행 임상 개선을 통한 후 속임상(SIT) 수행
	CreaVax-HCC(OP)	수지상세포의 항암 면역 증강을 이용한 간암치료제	3상 종료 후 품목허가 준비 및 진행
	CreaVax-HCC(TACE)	수지상세포의 항암 면역 증강을 이용한 간암치료제	간세포암 환자(TACE) 포함 대상자 확대
	CreaVax-RA	수지상세포의 자가면역 세포 억제 및 제거를 이용한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후속 임상 진입 검토 예정

\*출처 : 동사 분기보고서(2020년 9월)

## IV. 재무분석

### 신약 개발 및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한 시장영역 확대

동사는 의약품 관련 과감한 R&D 투자를 통한 차별화된 다양한 제품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여 최근 수 개년 매출 호조 지속되고 있고,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축적된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였으며, 면역세포치료제 개발 등 신성장동력 육성하고 있다.

#### ■ 제품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따른 최근 수 개년 매출 호조 지속

동사는 항진균제, 피부질환 치료제, 내과용제 등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생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업 영위 중인 제약 전문기업으로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기술력 축적하여 의약품 도매상, 약국, 병원 등 다수의 거래처와 긴밀한 협업 관계를 통해 다년간 안정적인 거래관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동사 최근 3개년 연결기준 매출실적은 2017년 768억 원, 2018년 918억 원, 2019년 1,025억 원으로 꾸준한 R&D 투자를 통한 신약개발 완료 및 기존 피부과, 소아과 중심의 영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내과 품목 중심의 영업기반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재정비에 따른 매출 창출로 최근 결산 3기 매출 호조 지속하였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글로벌 공급망 훼손, 경기 둔화, 유가 급락,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외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2020년 3분기 누적 매출은 주요 의약 제품의 매출은 축소(2019년 3분기 486억 원, 2020년 3분기 450억 원)되었으나, 진단키트 등 상품매출 증가(2019년 3분기 255억 원, 2020년 3분기 324억 원)로 전체적인 외형은 전년동기(759억 원) 대비 약 4.6% 증가한 79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동사는 피부과/비뇨기과, 소아과/이비인후과, 내과 등 클리닉 중심의 제품구성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형품목육성을 위해 발모제 등 제품을 차별화하여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과감한 R&D 투자를 통한 신약개발, 글로벌 양적완화로 산업 전반의 회복세, SK케미칼과 공동판매 협약 체결하여 공동 시너지 효과 극대화 기대 시 되는 점 감안, 향후 꾸준한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표 6] 유형별 매출실적 [K-IFRS 연결기준]

(단위 : 억 원)

사업 부문	매출유형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3분기
의약품	제품	541	593	659	450
	상품	214	307	342	324
	기타(용역 등)	13	18	24	20
합계		768	918	1,025	794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0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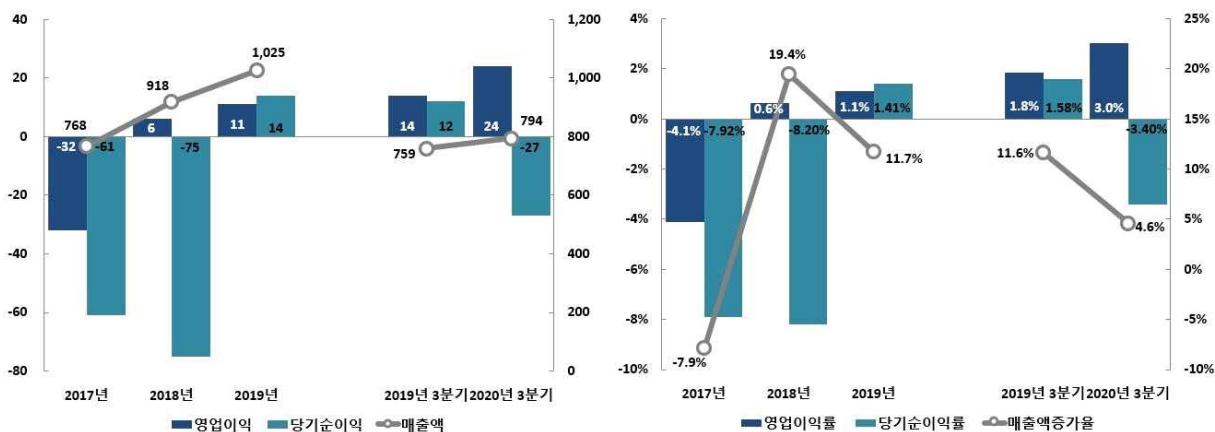
### ■ 매출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성장 지속

동사 2018년 결산기준 매출실적은 2017년 대비 19.4% 신장한 918억 원 시현하였고, 매출 신장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로 영업이익률은 흑자전환 하였으나, 무형자산 손상차손 및 법인세 증가 등으로 순손실 규모 확대(2017년 순손실 61억 원, 2018년 순손실 75억 원)되었다.

한편 신제품 출시(제이페롤주 등)로 2019년 결산기준 매출실적은 전년도에 이어 11.7% 신장한 1,025억 원 시현하였으며, 영업이익 규모 확대되어 11억 원 시현하였고, 상환전환우선주 평가 이익으로 순이익도 14억 원 기록하여 전반적인 수익성은 전년도 대비 개선되었다.

또한, 2020년 3분기 기준 매출실적은 전년 동기(759억 원) 대비 4.6% 증가한 794억 원 시현하여 최근 수 개년 매출 호조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가율 상승에도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 규모 확대되어 24억 원 기록하였으나, 상환전환우선주 평가손실 반영으로 순손실 27억 원(순이익률 -3.4%) 기록하여 적자 전환하였다. 다만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주요 의약품의 매출 증가 지속되고 있고, 동사 자회사인 JW크레아젠(주)의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면역세포치료제가 유럽, 일본, 중국 특히 획득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매출 신장을 통한 영업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

[그림 9]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K-IFRS 연결기준] (단위 : 억 원)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0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표 7] 주요 재무 현황 [K-IFRS 연결기준] (단위 : 억 원)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19년 3분기	2020년 3분기
매출액	768	918	1,025	759	794
영업이익	-32	6	11	14	24
당기순이익	-61	-75	14	12	-27
매출액증가율(%)	-7.85	19.43	11.72	11.62	4.61
영업이익률(%)	-4.12	0.63	1.12	1.84	3.02
순이익률(%)	-7.92	-8.20	1.41	1.58	-3.40
부채비율(%)	236.73	228.16	107.56	236.56	78.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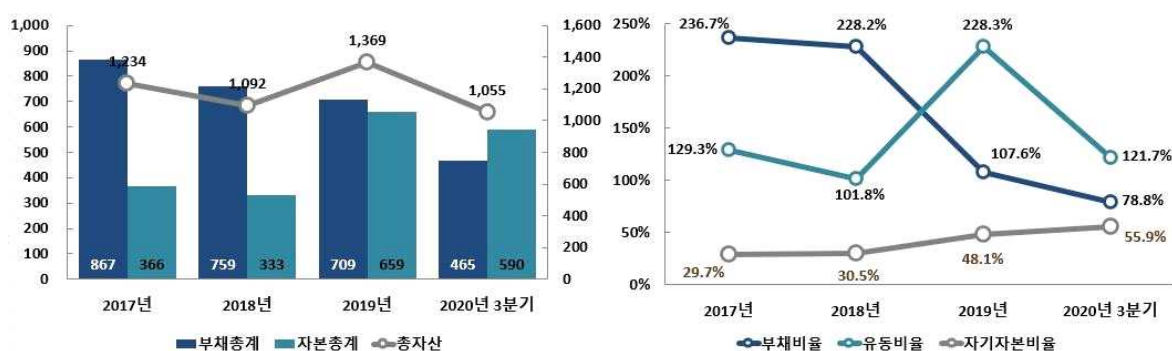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0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채무감축 노력에 힘입어 부채비율 등 전반적인 재무안정성 지표 개선**

동사는 2017년, 2018년 순손실이 지속되면서 2018년 자기자본이 333억 원으로 감소하여 자본력이 약화되었고, 주력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은행권 단기차입을 활용하면서 재무안정성 다소 미흡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9년 차입구조 장기화로 개편하여 단기 상환 부담을 완화하였고,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부채비율 107.6%로 개선하였으며, 유동비율 227.9%, 당좌비율 187.7%, 순차입금비율 17.1%로 향상되었다. 한편 2020년 3분기 기준 부채비율 78.8%, 자기자본 590억 원, 자기자본비율 55.9%로 개선되었으며, 영업 수익성 확대 및 이자 비용 감축을 통한 이자보상배수 2.4배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재무안정성 지표는 개선추세에 있다.

[그림 10]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K-IFRS 연결기준]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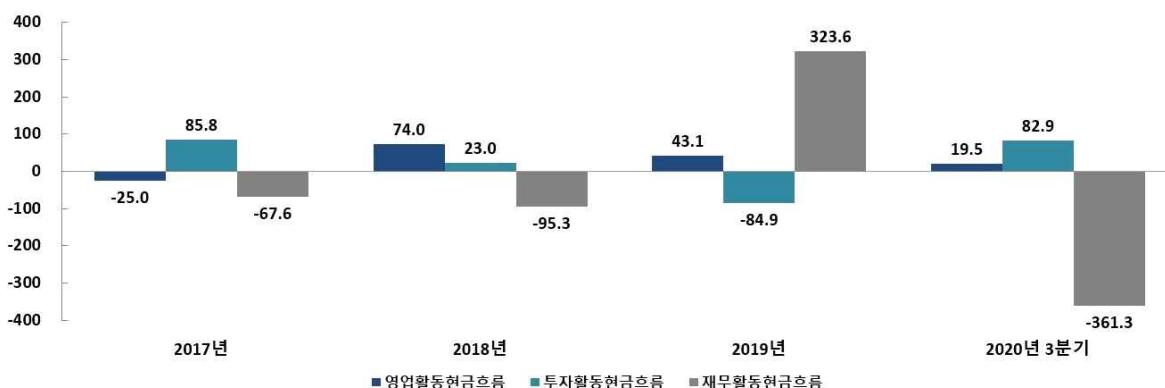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0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동사 현금흐름 측면에서 적자 시현 및 높은 이자 비용부담 등으로 2017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부(-)의 상황이었으나, 2018년, 2019년 영업 수익성 흑자 시현을 기반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정(+)으로 전환되었다. 2019년 투자활동 현금흐름 측면에서 유동 금융자산의 증가에 따른 현금 유출액이 현금유입액을 85억 원 초과하고 있고,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자기자본 증가하여 재무 활동 현금흐름은 유입액이 유출액을 약 324억 원 초과하고 있다.

한편 2020년 3분기 연결기준 꾸준히 영업 수익성 흑자기조 견지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정(+)의 상황 지속되고 있고, 단기금융상품 감소 등에 따른 현금유입액이 유출액을 83억 원 초과하고 있으며, 차입금 일부 상환 및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비용 등으로 재무 활동 현금흐름은 유출액이 유입액을 361억 원 초과하고 있다.

[그림 11] 현금흐름 분석 [K-IFRS 연결기준]

(단위 : 억 원)



\*출처 : 동사 연도별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2020년 9월), 한국기업데이터(주) 재가공



##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 고품질 제품 및 판매 영역 확장을 통한 매출 확대

동사는 기술개발을 통해 신규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함으로써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경쟁력 강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며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맞춰 마케팅 역량 강화, 공동판매 영역 확장 등을 통해 매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 ■ SK바이오사이언스의 대상포진백신 공동판매 영역 확장

2020년 6월 SK바이오사이언스와 대웅제약의 스카이조스터(SK바이오사이언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대상포진백신) 공동판매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스카이조스터의 판매 체계를 SK바이오사이언스의 모회사인 SK케미칼과 동사가 공동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는 기존 대웅제약·JW신약·SK케미칼 등 3사로 나뉘어졌던 판매 체계가 동사와 SK케미칼 양분 체계로 전환되는 것으로, 대웅제약이 담당했던 병원과 종합병원과 병의원급 의료기관의 영업을 나눠 맡게 됨으로써 스카이조스터 판매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동사는 스카이조스터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마케팅 강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며 제약업계도 언택트(비대면) 시대에 맞춰 소통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특히 동사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 '스마트 e-카탈로그' 시스템을 개발, 마케팅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기존 인쇄물 브로셔와 달리 웹과 모바일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전자 카탈로그로, 모션그래픽이나 동영상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문자나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카탈로그를 전송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줌(Zoom)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의료진을 상대로 온라인 영업을 시범 운영하는 등 이전까지 활용이 많지 않았던 방법을 동원해 영업활동을 진행했다.

[그림 12] 스마트 e-카탈로그



\*출처 : 동사 제공

또한, 2020년 8월에는 전국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JAMI Web Symposium’ 을 개최하였다. JAMI는 ‘JW신약 Alive Medical Information’ 의 약자로 동사 제품의 다양한 질환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온라인 심포지엄을 의미한다.

동사가 개최한 온라인 심포지엄은 총 8개의 질환별 주제(①탈모, ②고중성지방혈증, ③피부(손발톱)진균감염증, ④비타민D 결핍, ⑤비만, ⑥소화성 질환, ⑦배뇨장애, ⑧대상포진)로 구성되었으며, 질환에 대한 학술적인 지식을 교류하는 장으로 온라인을 통해 더 많은 의료진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의료 현장에 필요한 실질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사의 이러한 언택트 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영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향후 코로나19가 지나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도구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 ■ 과천 통합 R&D센터 입주를 통한 연구개발 역량 강화

JW그룹이 미래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복합시설의 개발사업을 통해 신사옥을 건립하고 있다. 2023년 초 준공 예정이며,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로 지어질 계획이다. 총 1,2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통합사옥에는 JW그룹 본사 및 주요 핵심 계열사와 각 사 연구소가 운영될 통합 R&D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다. 동사 연구소뿐만 아니라 주요 관계사인 JW중외 제약, C&C신약연구소, JW크레아젠, JW바이오사이언스 등 계열사마다 분리·운영되던 연구소를 한 곳으로 통합해 상호 간의 시너지를 끌어 올릴 예정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핵심 보건의료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 특화된 플랫폼 기술을 통합하여 계열사별 특화 플랫폼 기술이 한곳으로 모이는 계획을 하고 있다. 특히 C&C신약연구소가 개발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독창적 ‘코어 테크놀로지 플랫폼’ 을 다른 계열사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회사별 특화된 플랫폼 기술이 한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연구 시너지가 높아져 동사의 신약개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3] JW그룹 신사옥 조감도



\*출처 : JW홀딩스(주) 홈페이지

■ 골다공증 치료제 '제이페롤정'과 비타민D 주사제 '제이페롤주' 출시

동사는 2020년 8월 골다공증 치료제인 제이페롤정을 출시했다. 제이페롤정은 알렌드로네이트와 비타민D 복합제로 뼈를 파괴시키는 파골세포의 활동을 저해시키는 동시에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과 같은 위험을 감소시켜주는 제품으로, 폐경기 이후 여성 및 남성의 골다공증 환자 치료에 적응증을 가지며 1차 치료제로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알렌드로네이트 성분 1주일 용량과 비타민D 일일 권장량 800IU의 일주일 분량이 함께 들어 있어 주 1회 한 알만 복용하면 된다. 제이페롤정은 우수한 골다공증 치료효과는 물론 환자의 복약 편의성을 높인 제품이다.

또한,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생활 비율이 높아 비타민D 부족 현상이 늘고 있어 동사는 이러한 수요에 따라 2020년 9월 비타민D 성분을 함유한 제이페롤주를 출시하였다.

비타민D는 혈액을 통해 이동하는 지용성 비타민의 일종으로 인체 칼슘 항상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비타민D3는 자외선 합성을 통해 체내에서 만들어지며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합성이 어려우면 음식물 섭취나 주사 투여로 보충해야 한다.

제이페롤은 이러한 비타민D3로 알려진 콜레칼시페롤 5mg/mL로 구성된 주사제로, 1회 투여로 20만 IU의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으며, 의사 처방에 따라 적정량을 근육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여된다. 또한, 동사 제품은 실제 비타민D가 부족한 한국인 84명(19세~65세)을 대상으로 비타민D 투여 후 유효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24주 내 73.2%의 비율로 혈중 비타민D 수치가 정상 수준으로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다.

■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최근 1년 이내 발간 보고서 없음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그림 14] 동사 3개년 주가 변동 현황



\*출처 : 네이버 금융(2021년 1월 4일)